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 SCRIPTORY

로마서 39 주차 (롬 16:3-16:11)  
(2018년 6월 3일 - 2018년 6월 9일)  
(제5권 39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39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8 년 6 월 3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로마 교회 성도들—브리스가와 아굴라 (주일)

### 오늘의 본문 (롬 16:3-5a)

- <sup>3</sup> Ἀσπιάσαθε Πρίσκαν καὶ Ἀκύλαν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τοὺς συνεργούς μου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 <sup>4</sup> οἵτινες ὑπὲρ τῆς ψυχῆς μου τὸν ἑαυτῶν τράχηλον ὑπέθηκαν,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목을 내어 놓았다)  
οἷς οὐκ ἐγὼ μόνος εὐχαριστῶ ἀλλὰ καὶ πᾶσαι αἱ ἐκκλησίαι τῶν ἐθνῶν,  
(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 <sup>5</sup> καὶ τὴν κατ' οἶκον αὐτῶν ἐκκλησίαν. (또한 그들의 가정 교회를 [문안하라])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폐회 자매를 추천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들과 서로 문안하라고 권고한다.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다. 신약 성경에는 부부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아마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부부의 이름이 함께 언급된 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유일할 것이다 (부정적인 예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다). 참고로 베드로는 사역을 하는 내내 아내를 대동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경에 그의 아내에 관한 기록은 없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거의 관용어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늘 함께 등장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성경에 여섯 번 언급돼 있는데 누가 쓴 사도행전에 세 번, 바울이 쓴 서신서에 세 번 등장한다. 게다가 바울과 누가는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아내인 브리스가를 아굴라보다 앞에 언급하기도 했다.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토 출생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후손으로 그의 직업은 천막 제조업자였다. 아내 브리스가는 ‘작은 노부인’이라는 뜻을 가진 로마 귀족의 이름인데 실제로 로마의 저명한 가문 중에 브리스가 가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아마도 그녀는 로마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재미있는 사실은 누가는 좀더 친근한 이름인 브리스길라로 불렀으나 바울은 공식적인 이름인 브리스가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처음 만난 것은 바울이 2 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였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거쳐 아테네까지 내려간 바울은 이웃한 고린도로 갔는데 그곳에 마침 로마에서 온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잠시 거처하고 있었다. 그들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내린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 그들이 살던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는 바울과 이들 부부의 만남을 이렇게 적고 있다.

“<sup>1</sup> 이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sup>2</sup>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 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sup>3</sup>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행 18:1-3).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마침 천막짓는 것을 업으로 했던 바울과 아굴라의 가업이 같아서인지 이들은 신앙 생활뿐 아니라 일도 같이 했다. 그야말로 동고동락을 한 셈이다. 그때부터 그들은 바울과 사역을 함께 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로 향할 때도 함께 동행했고 에베소에서 당시 유명한 학자였던 이블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가르친 사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무렵에는 이들 부부는 로마로 돌아가 있었던 것 같다. 유대인을 추방했던 클리디우스 황제가 AD 54년에 죽고난 뒤 네로가 그 뒤를 이어 황제가 되자 추방령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오늘날 처럼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형편이 나은 성도들이 자기 집을 오픈하여 모임을 가졌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로마에 돌아가서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여 가정 교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롬16:5 상 참조).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이들이 바울을 대신하여 자기들 목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적이었다고 말한다. 물론 성경에는 이 일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다. 다만 바울과 이들 부부가 함께 있었을 때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갈리오는 바울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었다. 물론 바울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도록 허용한 회당장 소스테네가 유대인들에게 끌려가 많은 매를 맞았는데 이 일에는 갈리오가 나서서 말리지 않았다 (행18:12-17참조). 아마도 이런 위협을 당하는 과정에서 로마 귀족 출신인 브리스가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할 뿐이다. (물론 이것은 정설이 아니라 필자의 소견일 뿐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곁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목숨을 함께 하며 동고동락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때로는 든든한 경제적 지원자로, 때로는 복음의 동역자로, 때론 목숨을 함께 하는 동지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바울은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서신서 세 곳에서 성도들에게 그들을 문안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롬 16:3; 고전 16:19; n담후 4:19).

오늘날은 여러 면에서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활동했던 시대와는 많이 다르다. 특히나 한국이나 미국에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 놓아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자비량으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필요도 없고 교회 내에 자원 봉사자들도 넘쳐난다. 그 때문인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복음에 헌신적인 사람들은 드물다. 자기가 속해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피켓을 들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함께 하는 동역자는 별로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복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교회가 어느새 이익 집단으로 변질돼가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가 한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 한국의 한 PD는 교회를 고발한 영화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사족을 덧붙였다. “교회는 한국으로 건너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참으로 씁쓸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기억하는 이름들을 떠올렸다. 오늘날도 복음을 들고 묵묵히 전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비진리와 시투를 벌이며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브리스와 아굴라와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을까?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교회에서 어떤 일로 복음 전도에 동역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요?

## 로마 교회 성도들—에파이네토스(월요일)

### 오늘의 본문 (롬 16:5b)

5 .....

ἀσπάζεσθε Ἐπαίνετον τὸν ἀγαπητόν μου, (나의 사랑하는 에파이네토스를 문안하라)

ὅς ἐστιν ἀπαρχὴ τῆς Ἀσίας εἰς Χριστόν. (그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된] 아시아의 첫 열매이니라)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문안하라!” 바울은 이내 또다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다. 이번에는 에파이네토스다.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바울에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다음에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에파이네토스는 그리스식 이름이다. 그는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로마로 건너 온 이민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이름은 ‘찬양받기에 합당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마도 에베소에서 우상들을 섬기던 자가 아닌가 추정된다. 당시에 이 이름은 노예와 자유인들 모두가 쓰던 이름이었다. 학자들은 에파이네코스가 브리스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들의 노예였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들에게 고용되었던 사람이 아닌가 추정한다 (Robert Jewett, *Rom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906).

그러나 바울은 그의 신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를 자기가 사랑하는 자라고 설명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 에파이네토스! 그에게 문안해 달라는 바울의 어조로 보아 평범한 성도 하나도 세심하게 챙기는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다. 바울은 세상에서의 지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은 누군든지 차별을 두지 않았다. 사실 초대 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중에는 유명인들보다는 오히려 이름없고 천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출신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sup>26</sup>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sup>27</sup>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sup>28</sup>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sup>29</sup>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sup>30</sup>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sup>31</sup>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고전 1:26-31).

에파이네코스가 브리스와 아굴라에게 속한 노예든 그에게 고용되었던 자유인이든 그는 세상에서는 별로 주목 받을 것 없는 그저 그런 존재였다. 자신의 이름으로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하고 넉넉한 세간살이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신실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브리스와 아굴라를 만났다.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를 좇아 로마에까지 왔다. 아마도 바울이 브리스와 아굴라에 뒤이어 그를 소개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는 당시에 그 부부와 함께 다니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모습이다. 종이든 자유지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고 차별이 없음을 이론이 아닌 실제 삶으로 실천하고 경험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어떤 차별도 신분의 높낮이도 없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만 존재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라는 도망나온 노예가 등장한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역의 유지였던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였다. 그런 그가 어떤 이유로 빌레몬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끼친 채 로마로 도망을 쳤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오네시모를 처음 만났고 그는 바울의 전도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특별히 편지 한 통을 쓴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인데 그 편지에서 바울은 도망친 종 오네시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sup>10</sup>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sup>11</sup>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sup>12</sup> 네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심복이라 <sup>13</sup>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sup>14</sup>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sup>15</sup>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sup>16</sup> 이 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sup>17</sup>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찼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sup>18</sup>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계하라 <sup>19</sup>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갇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빛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sup>20</sup>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문 1:8-20).

12절의 ‘심복,’ 20절의 ‘마음’은 헬리어로 스프라그크논(σπράγγνον)이다. 내장이라는 뜻으로 반드시 필요한 존재며 뿔해야 뿔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오장육부처럼 생각하는 오네시모는 노예 출신이다. 그것도 주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쳐 온 노예다. 바울은 그를 위해 그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성경 66권 중에 당당히 들어 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그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된 아시아의 첫 열매다. 헬리어 아파르케(ἀπαρχή)는 첫 열매라는 뜻이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첫 열매는 처음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별도로 떼놓은 것을 일컫는 말이다. 여호와를 위해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이 첫 열매가 되는 셈이다.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되었다는 말이다. 바울이 에파이네토스를 첫 열매라고 한 것은 그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보는 게 적절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나누는 기도 제목도 대부분이 세상 문제에 집중돼 있다. 1세기 중반 로마의 한 가정 교회에 다니던 에파이네토스라는 성도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는 노예라는 하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의 헌신 덕에 엄청난 복음의 빛을 쬐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다. 하지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후대를 위한 믿음의 유산이 된다. 당신을 돌아보라. 지금 당신은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가?

## 목상을 위한 질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위해 당신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나요?

## 로마 교회 성도들—마리아 (화요일)

### 오늘의 본문 (롬 16:6)

<sup>6</sup> ἀσπάζασθε Μαρίαν, (마리아를 문안하라)

ἥτις πολλὰ ἐκοπίασεν εἰς ὑμᾶς, (그녀는 너희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했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문안하라 마리아를!” 마리아라는 이름은 당시 여성들에게 흔한 이름이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도 마리아다. 마리아의 히브리 이름은 미리암이다.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었는데 미리암은 ‘마라’와 어근이 같은데 비통, 고통이라는 뜻이다. 미리암은 배반자, 반항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다. 바울이 문안 하라고 한 ‘마리아’에 관해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그 당시 마리아는 매우 흔한 라틴 이름이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마리아를 마리우스(Marius)가문의 이방인 출신이라 추정하기도 하지만 학계에서는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마리아에 대해 가장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은 오래 전 로마로 강제 이주한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로마에 유대인 공동체가 세워진 시기는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로부터 1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63년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로마로 끌려갔고 노예가 되어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미리암 (로마 이름으로 마리아)은 유대인 노예 출신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녀의 이름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미리암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로마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도 바울은 미리암에 대해 “그녀는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했다”고 소개한다. 그녀가 한 일을 강조한 것이다. 이의 헬라어 표현은 ‘폴라 에코피아센 에이스 ὑμᾶς’ (πολλὰ ἐκοπίασεν εἰς ὑμᾶς)다. 여기서 동사 ‘코피아오’(κοπιῶ)는 단순히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열정적으로 헌신의 힘을 다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칠 정도로 일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인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23번 등장하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단어가 성도들에게 적용될 때에는 선교 활동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헌신적인 봉사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단어 자체가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앞에 부사 폴라(πολλὰ) 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더더욱 많이 수고했다고 지적한다.

미리암이 로마 교회를 위해 한 수고는 단 한 번도 로마 교회에 가보지 못한 바울에게까지 알려질 정도로 유명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누군가 로마 교회의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줄 때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했다. 어쩌면 그녀도 클리디우스 황제의 추방령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났을 수도 있다. 바울이 미리암을 직접 만났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해들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바울이 특별히 그녀를 호명하면서 그녀에게 문안하라고 부탁한 것을 보면 그녀가 어느 정도로 로마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그녀에 대해 바울에게 이야기 해주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 로마 교회에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 (미리암)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녀는 원래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입니다. 개종을 한 후 지금까지 그녀가 보여 준 헌신은 정말 말로 표

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도는 물론 교회 내에서 힘든 일들을 아무런 불평도 없이 척척 해냈습니다. 그녀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로마 교회가 이 정도로 안정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 로마 교회는 단 한 명의 사도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했거든요. 교회가 이 정도로 성장하기까지 그녀가 한 헌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오늘날처럼 잘 조직화 되어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에서는 합류되면 거기에서 빠져 나오기란 쉽지 않다. 아마도 미리암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투자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열두 사도의 목숨을 건 선교 활동은 물론이고 미리암과 같이 희생적으로 교회에 헌신한 귀한 지체들 덕분이다.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산다. 희생없는 누림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성도들의 헌신은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시점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온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물론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열두 사도만 예수님을 좇은 것이 아니다. 여러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며 뒷바라지를 했다. 그런데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 제자들은 허탈하여 뿔뿔이 흩어졌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기도 했다. 그런데 여자들이 안식후 첫날 새벽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놓아 둔 무덤으로 갔다. 당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왔던 여인들에 대해 마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sup>2</sup>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찌기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sup>3</sup>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sup>4</sup>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막 16:1-4).

이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곧바로 제자들에게 알렸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두 명의 미리암과 살로메(살롬)이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허망하고 비통해서 사흘 동안 잠도 못 이루었을 것이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비통함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밀려왔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부활의 소식을 들으며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느꼈을 것이다. 그 기쁨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함께 밀려든다. 세상 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성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성령님이 지배하는 것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되어 있다. 로마 교회의 미리암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동으로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렇다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나누는 곳만은 아니다. 교회는 세상 어떤 모임과도 비교할 수 없는 헌신자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복음은 그 성격상 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은 드넓은 대지를 가로 지르고 2000년이라는 시간의 장벽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 복음은 단순히 복된 소식만이 아니다. 복음은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 온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교회에는 수많은 미리암들이 있고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분명 이렇게 칭찬하실 것이다. “교회를 위해 참으로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미리암을 향한 바울의 칭찬은 짧지만 깊은 울림을 준다.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한 구절로 인해 순식간에 피로감이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그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 로마 교회 성도들—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 (수요일)

### 오늘의 본문 (롬 16:7)

<sup>7</sup> ἀπάσαιστε Ἀνδρόνικον καὶ Ἰουλίαν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를 문안하라)  
τοὺς συγγενεῖς μου (나의 친척들이고)  
καὶ συναχμολώτους μου, (나의 동역자들인)  
οἵτινες εἰσιν ἐπίσημοι ἐν τοῖς ἄποστόλοις,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는 유명 인물들이다)  
οἱ καὶ πρὸ ἐμοῦ γέγοναν ἐν Χριστῷ.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먼저된 사람들이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안드로니코스는 헬라식 이름이고 유니아는 로마식 이름이다. 그레코로만 시대에 안드로니코스는 명망있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 이름이 자유인들에게만 붙여진 건 아니다. 노예에게도 종종 이 이름을 부여하곤 했다. 따라서 안드로니코스가 노예였는지 아니면 자유인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로마식 이름인 유니아도 노예인지 아니면 자유인이었는지 그 이름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소개했듯이 그들은 바울의 친척들이며 또한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사도들 사이에서는 유명 인물들이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며 자신의 친척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헬라식과 로마식 이름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울은 이들을 자신의 친척들이라고 소개한다. 헬라어로는 ‘토우스 수게네이스 모우’ (τοὺς συγγενεῖς μου)라고 쓰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친척이라는 단어가 모계와 부계 쪽으로 가까운 혈족들을 의미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친척은 이보다 훨씬 광의로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롬 9:3)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형제, 골육의 친척은 단지 바울과 혈족 관계에 있는 친척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다. 바울은 이들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라고 기록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 로마에 살았다. 그들이 사도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로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 아닌가 추정된다.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이한 현상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루살렘 광장으로 뛰어나갔다. 베드로가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파했다. 누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sup>6</sup>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sup>6</sup>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sup>7</sup>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sup>8</sup>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이뇨 <sup>9</sup>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sup>10</sup>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 온 사람들과 <sup>11</sup>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sup>12</sup>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sup>13</sup>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행 2:5-13).

10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추측건대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가 이들 무리에 섞여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평생을 믿던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다. 베드로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찌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행 2:36)라는 말로 그날의 설교를 마무리했다. 그 중에는 베드로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숫자가 삼천 명에 달했다 (행2:41참조).

안드로니코스와 유니게도 아마 그들 삼천 명 중에 속했을 것이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지식을 쌓아갔다. 물론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며 교회의 삶에 대해서도 배웠다. 바울은 그들이 사도들 사이에서 유명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 헬라이어 원문에는 ‘에피세모이 엔 토이스 아포스토로이스’ (ἐπίσημοι ἐν τοῖς ἀποστόλοις)로 되어 있다. ‘에피세모스’ (ἐπίσημος)는 전함의 뜻대 위에 세우는 깃발이나 병사들이 든 방패 앞에 새겨진 자신의 소속을 나타내는 문장 등을 의미한다.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면 그 사람은 그가 속한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에피세모스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기부터 교회를 형성하고 안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로 보아도 될 듯하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테반의 죽음 이후 최대 위기를 맞는다. 유월절과 오순절을 맞아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헬라파 유대인들)은 스테반의 순교 이후 극심한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져 원래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완전히 대척점에 있었다. 바울이 스테반 순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휩박한 주동자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쫓아냈을지도 모르는 그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가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았다.

단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유대교의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오직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들은 즉시 복음에 헌신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기로 작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복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할만한 가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는 그런 자들 중에서도 깃발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깃발과도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고자 합니까?

## 로마 교회 성도들—암프리아투스, 우르바누스, 스타쿠스 (목요일)

### 오늘의 본문 (롬 16:8~9)

- <sup>8</sup> ἀσπάζεσθε Ἀμπλιᾶτον (암프리아투스를 문안하라)  
τὸν ἀγαπητόν μου ἐν κυρίῳ.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
- <sup>9</sup> ἀσπάζεσθε Οὐρβανὸν (우르바누스를 문안하라)  
τὸν συνεργὸν ἡμῶν ἐν Χριστῷ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καὶ Στάκυν (스타쿠스를 문안하라)  
τὸν ἀγαπητόν μου. (나의 사랑하는 자)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많은 지하 무덤들(카타콤베)이 있다. 이 무덤들은 도미시안 황제(AD81-96년까지 재위) 때 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미시안 황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하게 핍박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토굴을 파고 들어가 숨어 살아야 했다. 그 토굴들은 당시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자 그들의 무덤이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카타콤베에서 태어나 평생을 거기서 살다가 카타콤베에 묻히기도 했다. 도미틸라 카타콤베도 그 중 하나다. 도미틸라, 정확히는 플라비안 도미틸라(Flavian Domitilla)는 원로원의 멤버로 알려진 인물인데 그와 가족들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발각되어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 곧바로 쫓겨 났다. 그들이 어떤 경로로 복음을 받아들였지는 알 수 없으나 흥미로운 사실은 도미틸라의 가족 카타콤베에서 ‘암프리아투스’라는 이름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암프리아투스는 노예 신분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암플(ample)은 포도원을 상징한다. 참고로 포도는 헬리어로 암페로스(ἄμπελος)라고 한다. 그는 처음에는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훗날 도미틸라의 집안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후에 그의 주인인 도미틸라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면 도미틸라가 먼저 믿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가 노예였다는 점과 그가 사도 바울과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당시 노예는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데 로마에 살고 있는 그가 어떻게 아시아와 아카야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다. 아마도 그의 주인 도미틸라의 호의로 여행을 할 수 있었고 바울을 만났던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바울은 그를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가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흑시라도 있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이다. 그런 그가 노예인 암프리아투스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된 것이다. 바울은 지금 암프리아투스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신분 제도가 없는 사회에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다. 그러나 당시에 이 말은 일반 사람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혁명적인 말이었다. 있을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이다.

바울이 그 다음으로 주목한 사람은 우르바누스다. 그는 바울이 너무도 잘 아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바울은 그를 만났고 그와 동역했다. 학자들은 우르바누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바울의 사역을 도운 것으로 추정한다

다. 바울이 2차 또는 3차 전도 사역 당시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을 것이다. 우르바누스는 라틴계 이름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 출신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그의 이름의 뜻은 재주가 많은, 정제된, 절제된 등의 의미가 있다. 이를 위시네임(wish-name)이라고 한다. 이같은 위시네임은 주로 노예들에게 붙여주었다. 당시 문헌에는 많은 수의 동명이인들이 발견되는데 그들 대부분은 여성이며 노예였다. 참고로 우르바누스의 여성 이름은 우르바나이다. 그렇지만 우르바누스라는 이름을 지녔다고 모두를 노예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당시 노예들은 귀족이나 심지어 왕족에게 입양되어 자유인의 신분을 얻기도 했다. 따라서 바울이 언급한 우르바누스의 신분이 노예였는지 아니면 자유인이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로마에 살던 그가 어떤 이유로든 자유롭게 여행을 해서 바울의 사역지까지 왔고, 바울을 만나 그의 사역을 도왔던 것을 보면 그가 복음을 믿었던 당시에는 노예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르바누스에 이어 스타쿠스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바울은 그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소개한다. 스타쿠스는 그리스식 이름으로 ‘옥수수 한 대’(an ear of corn)라는 뜻이다. 이름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그리스에서도 노예 신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름의 소유자들은 로마에서는 주로 노예 신분자들이었다. 그는 로마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특히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의 성도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살았으나 각각의 가정 교회는 대체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따로 모이는 곳이 많았고 두 집단이 함께 어울려 모인 가정 교회들은 소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암프리아투스, 우르바누스, 스타쿠스는 모두가 노예 신분으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로 추정된다. 앞서 몇 번에 걸쳐 설명한 바 있지만 당시 노예는 자유인에 비하면 신분이 아주 낮은 자들이어서 살아있는 재산 정도로 취급되었고 사고 팔 수도 있는 존재였다. 따라서 노예의 생사여탈권은 오직 주인에게 달려 있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며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세네카가 쓴 글에서 당시 노예들의 현실을 엿볼 수 있다.

“집주인은 그가 저녁 식사를 할 때 수많은 노예들에게 둘러싸인다. 노예들은 집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 꿈쩍 못하고 주인의 주변에서 있어야 한다. 주인은 배가 불러서 배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개걸스럽게 먹는다. 집주인은 먹은 것이 너무 많아 토할 정도까지 되면 그 음식들을 억지로 눌러내린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불쌍한 노예들은 입술조차 움직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입술이 움직이면 [가치없이] 뺨에 회초리 세례를 받는다. 기침이나 콧소리 심지어 딸국질을 해도 사정없이 매를 맞는다. 때론 밤새도록 입을 다문 채, 배를 쭈뼛 굽고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면서 선 채로 그대로 대기해야 했다” (Seneca, *Letters from a Stoic* (New York: Penguin Books, 2004), 91.).

이것이 당시 노예들의 삶이다. 세네카는 이들 노예들도 신이 창조한 소중한 존재이며 이들을 인격적이고 동일한 존재로 대해줄 것을 역설했다. 물론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철학자였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철학을 실제로 구현한 곳이 바로 교회였다.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았다. 바울은 특별히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동역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몸소 실천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사회에서의 신분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유지되고 있지는 않은가? 사회적 신분을 내세우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주 안에서 차별없이 하나 되었을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차별없이 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이들과 어떻게 동역하고 있나요?

## 로마 교회 성도들—아펠레스와 아리스도블로스의 가족들 (금요일)

### 오늘의 본문 (롬 16:10)

<sup>10</sup> ἀσπιάσαθε Ἀπελλῆν (아펠레스를 문안하라)  
τὸν δόκιμον ἐν Χριστῷ.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ἀσπιάσαθε τοὺς ἐκ τῶν Ἀριστοβούλου. (아리스도블로스의 가족들을 문안하라)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펠레스는 헬라식 이름이다. 그의 이름으로 미루어 그는 그리스 지역에 살다가 로마로 이주해 왔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가 노예였는지 자유인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당시 문헌에 따르면 이 이름은 자유인들과 노예들에게 동시에 쓰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어느 민족인지도 분명치 않다. 유대인 아펠레스 (Apell the Jew)라고 적힌 당시 문헌도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 아펠레스의 출신 신분은 전혀 알 길이 없다.

바울은 아펠레스를 소개하면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 ('톤 도키몬 엔 크리스토' (τὸν δόκιμον ἐν Χριστῷ))라고 언급한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검증에 통과했다는 말이다. 물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일은 쉬운 일도 아니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사람들은 스스로의 신앙을 입증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스스로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sup>6</sup>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sup>7</sup>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고후 13:5-7).

시험은 믿음의 테스트다. 이는 단순한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며 부활이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임을 부인하겠는가? 그렇지만 그것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 구원을 확증할 수는 없다. 단지 입으로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가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오직 믿음의 시련 과정을 통과하여 스스로 믿음 안에 서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믿음의 시험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늘 일어난다. 그 시험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자기가 누리는 경제, 건강, 지위 등이 바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고 축복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시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사실 세상에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잊게 될 공산이 크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고 스스로 믿음 안에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가난, 질병, 세상에서의 실패를 통해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원치 않는 불편한 현실을 만나면 그 현실로부터 벗어나려 애를 쓴다. 그게 인지상정이다. 연약한 인간이 기댈 곳이 하나님 밖에 더 있겠는가? 그런데 지나치게 현실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은 현실 부정에 가깝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게 되는데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특별 기도까지 한다. 물론 기도 제목은 자신이 당면한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부류의 신앙인들은 시험에 통과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당하는 불행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하나님의 저주라 생각하는 사람 둘 다 문제가 있다. 신앙은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와 같은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상황이 믿음을 흔들 수는 없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형편을 신앙에 빚대어 이렇게 설명한다.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sup>5</sup>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sup>6</sup>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sup>7</sup>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sup>8</sup>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옹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sup>9</sup>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sup>10</sup>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sup>11</sup>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sup>12</sup>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sup>13</sup>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4-13).

바울은 스스로의 간증을 통해 자신의 삶에 찾아온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한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상황이나 형편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은 굳건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아펠레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다. 바울은 그를 만나 그의 믿음에 대해 관찰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리에 기반을 둔 믿음의 소유자라는 판단이 섰을 것이다. 아펠레스는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이 믿음 안에 있음을 입증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 오늘날에는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일종의 인생 도우미에 불과할 뿐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인정받았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있습니까?

# 로마 교회 성도들—아리스도블로스의 가족들과 헤로디온 (토요일)

## 오늘의 본문 (롬 16:10~11)

- <sup>10</sup> ἀσπιάσαθε Ἀπελλίην (아펠레스를 문안하라)  
τὸν δόκιμον ἐν Χριστῷ. (그리스도안에서 인정을 받은)  
ἀσπιάσαθε τοὺς ἐκ τῶν Ἀριστοβούλου. (아리스도블로스의 가족들을 문안하라)
- <sup>11</sup> ἀσπιάσαθε Ἡρωδίωνα (헤로디온을 문안하라)  
τὸν συγγενῆ μου. (나의 친척)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이 10절에서 두 번째로 소개한 사람들은 아리스도블로스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아리스도블로스 집안에 속한 노예들을 일컫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이 언급한 아리스도블로스는 바울이 직접 문안 인사를 하라고 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가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노예들이 문안의 대상이다. 아리스도블로스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Robert Jewett은 그의 주석에서 아리스도블로스가 헤롯 대왕의 후손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어지는 헤로디온은 아리스도블로스 집안의 노예 중 한 사람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Robert Jewett의 설명을 들어 보기로 하자.

“아리스도블로스라는 이름은 로마의 문헌들과 비문들을 통틀어 단 두 번만 발견된다. 그가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아리스도블로스는 그의 형제 헤롯 아그립마와 함께 볼모로 로마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그립마는 훗날 로마 황제가 되는 클라디우스와 동문수학했다. ...(중략)...그러므로 이 특정한 아리스도블로스는 헤롯 대왕의 손자 중 한 명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있다. 그(아리스도블로스)는 A.D. 45년 이후에 숨졌다. 그는 분명히 클라디우스 황제와 관계를 갖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결국 그는 정부의 노비들을 자신의 관료 조직 안으로 포함시켰다”(Robert Jewett, *Rom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966).

아리스도블로스는 헤롯 아그립마 2세와 형제 관계이며 볼모로 로마로 붙잡혀 왔다. 헤롯 아그립마 2세는 훗날 로마 황제가 되는 클라디우스와 동문수학 하면서 로마 제국의 핵심부와 교류를 했고, 그런 인연으로 후에 유대의 분봉왕이 되어 40년 넘는 기간을 통치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아그립마 2세에게 심문을 받은 바 있다. 바울은 재판관을 받는 죄인이었지만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아그립마 왕에게 복음을 전했다. 잠시 사도 바울이 아그립마 2세 앞에서 자신을 변론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sup>2</sup> 아그립마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sup>3</sup>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sup>4</sup>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애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중략)... <sup>22</sup>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것 밖에 없으니 <sup>23</sup>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sup>24</sup>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sup>25</sup>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차린 말을 하나이다 <sup>26</sup>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sup>27</sup> 아그립마왕이여 선

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니이다<sup>28</sup> 아그립바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sup>29</sup>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행 26:2-29).

바울은 이미 아그립바의 형제 아리스도블로스가 로마에 있고, 그의 집안에 있는 노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노비들은 사노비들이라기보다는 관노비에 가까웠다. 아그립바 2세가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기 1년 전인 A.D. 53년에 유대 분봉왕에 즉위한 것을 감안하면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고 하는 그 노비들과 이미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아그립바 2세는 바울을 매우 관대하게 대했다. 그는 바울이 무고하게 잡혀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바울의 변호를 들은 후 만약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무죄방면했을 거라고 아쉬워했을 정도다 (행26:32참조).

Robert Jewett은 헤로디온을 아리스도블로스 집안의 노예 중 한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학자는 헤로디온은 유대인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으로 보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친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유대인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가 자유인이든 노예의 신분이든 그 또한 로마 교회의 핵심 멤버 중의 하나였음에 틀림이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리스도블로스의 집에 있는 노비들에게 문안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관료 조직 안에 있는 관노비들이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 관료 조직에까지는 전파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헤롯 가문은 기독교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다. 그런데 관료 조직 내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 먼저 복음을 전해 받은 것이다. 그들은 매우 신실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에게까지 그들의 신앙이 전해졌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바울은 클라디우스 황제에 의해 추방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들의 신앙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바울이 만난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아리스도블로라는 헤롯 가문의 명망가 집안에 관으로부터 파견된 노비들이 있는데 그들은 매우 신실하며, 그들을 통해 복음이 로마 관료 조직 내로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했다.

당시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대놓고 박해하지 않았다. 박해를 하기에는 아직 그 영향력이 미미했으며, 소위 황제 숭배도 본격화 되지 않을 때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 직접적 이해 관계도 없었다. 게다가 처음에는 주로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는데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의 충돌도 별로 없었다. 훗날 이들을 통해 복음은 로마 제국의 핵심부로 진입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윗사람을 사용하여 아랫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보기에 하찮은 존재들을 통해 복음이 세상의 상층부로 전해지는 방식을 택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놀랍게도 복음이 귀족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시사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알렌 크라이더의 『회심의 변질』 (대장간)을 읽어 보기 바란다.) 세상에서 소위 유명인인가? 그 유명세 때문에 당신에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반대로 스스로가 하찮은 존재라 생각되는가? 그렇다면 그로 인해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였습니까?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